한국도시인의 가족갈등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거주 부인의 표본조사를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김 양 희

연 구 목 적

한국의 가족은 산업사회에서 볼 수 있는 가족의 형태로 변화했으면서도 가부장적 요소는 변형된 형태로 오히려 강화되었고 이러한 모순성 때문에 가족성원들 간에 갈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족구조의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주부들이 인지하는 가족갈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론적 관심을 사회학 이론 중에서 갈등이론에 토대를 두었다. 연구의 목적은 가족애와 대조적인 이해관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자원분배차이와 권위차이로 인한 가족관계별 가족갈등을 파악하고 이러한 갈등에 가족성원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저 한다.

연 구 방 법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부인 791명이다. 측정도구는 갈등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로서 갈등이론, 한국가족 관계의 특성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자원, 권위요인에서 발생되는 갈등을 부부관계, 고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별로 알아보고 이러한 갈등에 대한 가족원의 대처관리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이 포함되었다. 자료분석은 사회학적 변화에 따른 가족갈등을 분산분석(ANOVA)을 하였으며 자원배분 차이와 권위차이에 대한 갈등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t 검증을 하였다.

그리고 가족갈등과 갈등관리 방법의 유의성을 파악키 위해 X^2검증을 하였다.

이를 위한 통계처리는 SPSS program을 이용하였다.

연 구 결 과

사회학적 변수중 부인의 연령, 남편의 직업, 가족주기등이 가족갈등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인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원배분의 차이로 인한 갈등은 높게 나타났으며 권익차이로 인한 가족갈등은 초기엔 증가하다가 40대를 기점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남편의 직업과 자원배분의 차이로인한 가족갈등은 직업위치가 낮을수록 갈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권위차이로 인한 갈등은 직업변수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갈등관리방법에서는 연구에서 설정한 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갈등관리방법의 유의도를 일반화하긴 어렵고 자원배분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은 합의보다 권위문제로인한 갈등의 회

피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원과 권위로 인한 가족갈등비교에서 권위로 인한 가족갈등이 심하게 나타났다. 가족관계별 갈등에서 부부관계가 다른 가족관계에비해 갈등이 심하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갈등이 가족내의 과정에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 현상을 무시한다면 한국사회의 가족현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한국가족구조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등에 관한 연구가 더욱 더 필요하며 앞으로 가족의 연구에서 이론적 공백상태를 메꿀 수 있는 좀 더 계속적인 연구와 방법론적인 세련화가 진행되기 바라며 본 연구가 그러한 방향에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住宅建築에서의 瑕疵 出現에 관한 硏究

건국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姜　　淳　　柱

서　　론

1) 문제제기

日本은 高度經濟成長期(1955～1973年) 以來, 都市를 中心으로 많은 住宅需要에 對應하는 새로운 供給형태로서 住宅의 商品化가 급속히 發展하였다. 그 결과, 종래의 영세건설업자와 구입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信賴關係는 점차 사라져가고, 조직적인 住宅産業界와의 단순한 契約關係의 거래로 변하게 됨으로써, 住宅에서의 瑕疵(하자) 문제는 개인적 레벨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새롭게 社會的 問題로 대두된 것이다.

現存하는 住宅의 하자 빈발의 원인은 여러가지로 생각될 수 있겠으나 前述한 바와 같이 이윤추구만을 중시하는 住宅産業界에도 그 원인의 一面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一般的으로는 現場作業의 시공부실, 現場監理의 불성실, 粗雜한 재료사용, 새로운 재료및 工法, 즉 건축의 工業化工法의 미숙련등이 하자를 出現시킨 주요 원인이라 생각된다.

2) 연구의 의의및 목적

本硏究에서 住宅의 하자는 건축상 피할 수 없는 것이라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住宅 하자의 出現이 量的으로나 質的으로 어느 정도까지 許容할 수 있는 가를 객관적으로 解明할 필요가 있으며, 硏究를 통하여 하자 出現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生産供給者와 需要者사이에 공정한 相互理解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겠다. 따라서 本硏究는 住宅의 설계, 감리, 시공상의 기술적 진보에 기여하고, 在來工法이나 각종의 工業化工法으로 인한 住宅의 質的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더불어 하자보증제도의 再檢討를 위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3) 연구방법 및 내용

本硏究는 日本 大阪府에 있는 住宅을 대상으로 제1차 조사를 하고, 제2차 조사로 阪神間(大阪과 神戶를 연결하는 지역)을 포함한 近畿地方, 東京都, 態本縣(九州), 金澤市의 4地域의 民間中間階層住宅[1]을 대상으로 한다.

하자 범위는 설계, 시공상의 物理的 하자로서 居住者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에 국한하여, 설문지와 現地調査를 통해 硏究 分析한다.

즉. ① 物理的측면－하자종류의 영역 ② 心理的측면－하자 程度에 의한 居住者의 評價 ③ 經年的측면－하자의 發生時期에 의한 經年變化 등의 하자發生 實態를 파악하고, 住宅의 諸要因(住宅種類, 建設年度, 單價) 들과의 因果關係를 究明함과 동시에, 建築 各 部位別의 하자 經年變化를 回歸式으로 表現하여 一般住宅의 하자 評價基準을 創案한다. 또한 건축후, 5～10年에 걸

1) 住宅金融公庫融資대상 住宅을 말하며, 주택 전용면적이 40㎡－165㎡이고, 구입가격은 2500万円～3200万円 정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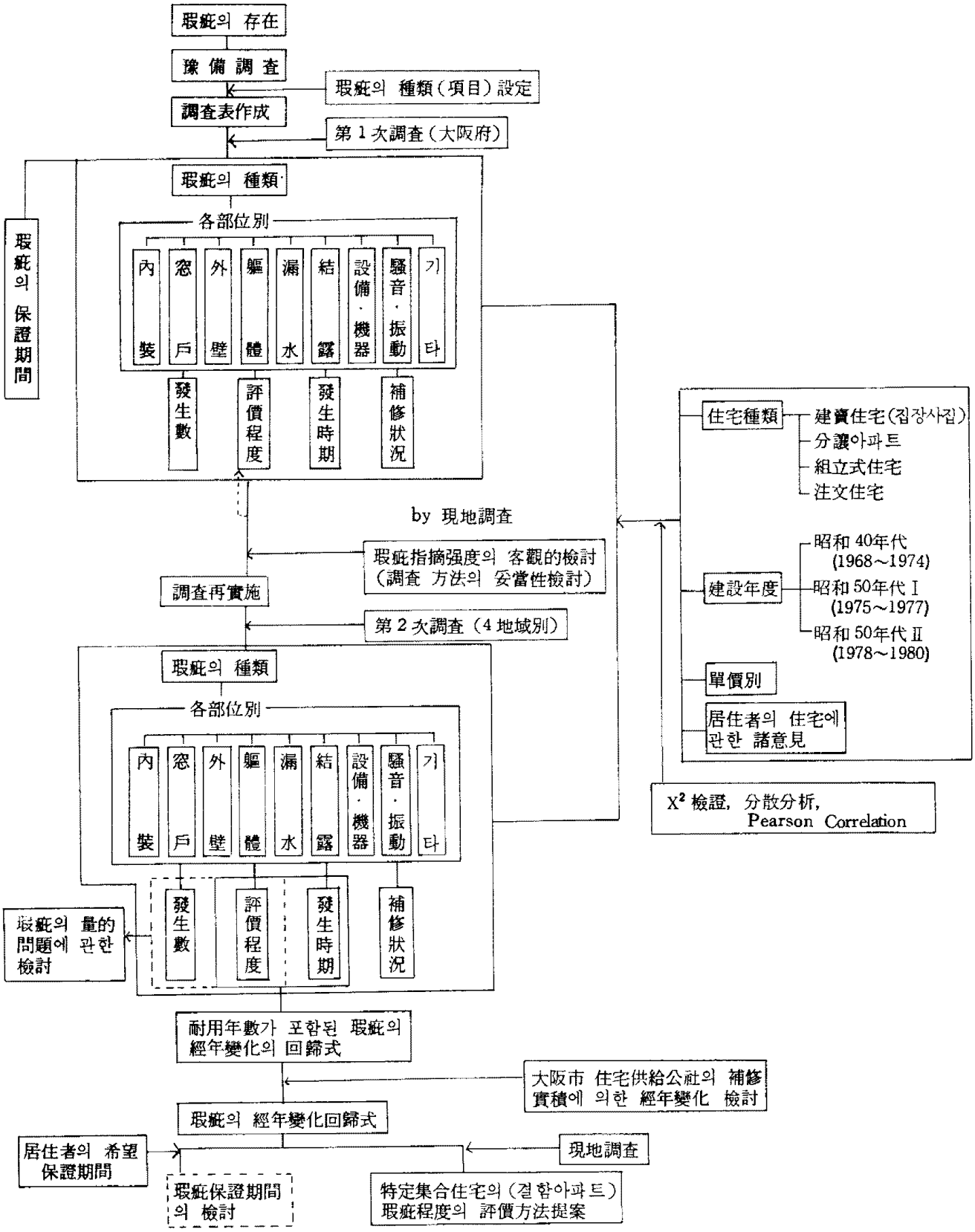


그림 1. 研究의 Flow chart.

친 住宅의 건축 部位에 따라서는 減耗에 의한 耐用年數가 포함된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하여 大阪市住宅供給公社의 임대주택에 대한 補修工事의 實積資料를 分析한다. 마지막으로 本研究에서 創案한 하자의 出現經年變化式이 一般住宅의 하자 실태를 評價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特定住宅(결함주택)을 대상으로 비교 평가해 본다.

以下, 연구 Flow chart(흐름도)를 그림 1에 圖示한다(그림 1).

연구결과 및 고찰

1) 本研究는 제1차조사로 大阪府 住宅의 하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통해 345戶의 回答을 分析하였다. 그 결과, 91.7%의 住宅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1戶당 발생하는 하자發生量은 建設年代와 住宅種類別에 有意差가 있었는데, 특히 아파트, 조립식주택에는 새로운 年度일수록 하자發生量이 작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住宅의 工業化가 추진되면서 점점 品質的으로 안정된 住宅이 供給되어지고 있음을 示唆한다고 본다.

2) 제1차조사를 step으로, 설문지 조사에 의한 하자 연구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즉, 제1차로 조사한 대상 주택 중에서 現地調査의 合意를 얻은 26戶의 住宅을 방문하여 居住者의 하자 指摘과 調査者에 의한 指摘强度를 비교하여 有意差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兩者間의 評價에 有意差는 볼 수 없었으므로 被調査者에게는 상당히 귀찮고 많은 질문조사라 하더라도 調査의 社會的 意義가 居住者에게 이해될 경우 설문지 결과가 신용할 수 있음을 立證하였다고 하겠다.

3) 2)의 검증결과에 의해, 제2차조사는 全國 4地域으로 확대하여 住宅 하자의 實態를 파악하고, 하자 出現의 法則性을 보다 상세하게 量的으로 表現하고자 分析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하자 發生率은 全體的으로 「窓戶」「內裝」에 관한 항목이 높았으며, 住宅種類別로는 분양아파트에 「騷音·振動」「設備·機器」「結露」에 관한 하자가 많이 發生하여 다른 住宅種類와의 有意差를 보였다. 또한 建賣住宅(집장사집)에는 防水不備 및 內裝의 마감에 관한 하자가 많아, 民間業者들에 의한 집장사집이 시공면에서 불성실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2) 地域別의 하자發生의 특징으로는, 눈이 많이 오는 金澤市 지역의 風土性을 나타내는 결과로서, 「結露」에 관한 하자가 많이 發生하여 他地域과의 有意差를 보였다.

(3) 1戶당 발생하는 하자 發生量은 住宅種類와 建設年代에 따라 有意差를 보였다. 즉 새로운 年代의 住宅일수록 發生하는 하자의 量은 작아지는데, 특히 아파트, 조립식 주택의 경우는 昭和40年代(1968~1974)와 50年代(1975~1980)의 차이가 현저했다. 이 결과는 제1차조사 결과와 같은 경향으로, 工業化工法등에 의한 기술적 진보의 결과라 사료된다. 反面, 本研究에서 하자 發生이 가장 많은 집장사집이 建設年代別의 有意差가 보이지 않음을 볼 때, 앞으로 建賣住宅産業의 경영방침 쇄신 및 기술의 근대화가 요청된다.

(4) 하자 發生의 累積經年變化는 4개의 패턴으로 分類할 수 있었고, 각 패턴에 맞는 4개의 回歸式을 最小自乘法으로 구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y: 하자發生率 x: 建築經年, a, b, c, d: 係數)

① Ⅰ型 : $y = a + be^{-\frac{1}{c(x+1)}}$ $(x \geq 0)$

② Ⅱ型 : $y = a + \dfrac{b}{1+ce^{-d(x-3)}}$ $(x \geq 0)$

③ Ⅲ型 : $y = ax^2 + bx + c$ (Ⅲ-1)

$y = ax^3 + bx^2 + cx + d$ (Ⅲ-2)

④ Ⅳ型 : $y = a$

(5) (4)의 결과에서 Ⅲ型은 耐用年數에 의한 機能減耗가 포함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것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30年間에 걸친 住宅公社의 임대주택 2,034戶에 대한 補修工事 實積調査를 分析하였다. 그 결과 補修工事의 經年 變化에서, 하자와 耐用年數와의 경계점이라 판단되는 反曲點의 時期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건축 部位別 하자의 성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조체」「누수」에 관한 하자는 10年, 「내장」「창호」「외장」「설비·기기」에 관한 하자는 5年까지의 發生率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하자의 4개 패턴 가운데 Ⅲ型의 패턴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訂正하고, Ⅰ型, Ⅱ型, Ⅳ型을 하자 發生型으로 하여 住宅種類別, 建築部位別로 각 하자發生 經年變化式을 제시하였다.

결　　론

1) 本 硏究는 一般住宅의 하자 실태를 파악한 것으로, 앞으로 特定住宅의 하자發生 程度를 質的으로 評價할 경우, 本 硏究에서 창안한 하자의 經年變化式이 하자 發生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本論文 8章에서는 「결함아파트」를 대상으로 例示하여 그 평가기준이 됨을 입증하였다).

2) 本 硏究에서 얻은 하자 發生期間의 결과와 설문지를 통한 居住者의 하자보증희망기간(주요구조부 5~10年, 내·외장 3~5年, 설비·기기 1~3年)을 고려할 때, 現行되고 있는 하자보증기간을 社會的인 요청으로 建築四會[2]가 먼저 自主的으로 改正해야 됨을 제안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民法 第638條에 나타난 하자보증담보기간(목조 5年, 목조 이외의 구조물 10年)의 규범적 규정과의 整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3) 건축 각 部位의 하자 發生期間의 결과는 앞으로 公共, 民間아파트의 一般補修와 計劃補修 기간의 再檢討를 위한 실질적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本 硏究는 筆者가 留學 關係上, 日本住宅의 하자 문제를 硏究한 것이나, 本硏究 테마는 日本에 限定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및 他國에서도 住宅計劃, 住宅問題, 住宅生産등의 넓은 分野에 깊이 관여되는 중요한 문제라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메스콤을 통해서 不實工事로 인한 하자문제가 社會的 問題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아, 앞으로 本 硏究를 바탕으로 한국 住宅의 하자문제를 體系的으로 硏究해 보고자 한다.

---

2) 建築四會는 日本建築學會, 日本建築士會, 日本建築家協會, 全國建設業協會를 말함.

韓國人의 住居調整 및 適應에 關한 硏究

- 朝鮮時代부터 現在까지 -

高麗大學校 大學院 家政學科

洪　亨　沃

本 硏究는 傳統 住居現象을 Morris와 Winter (1978)의 모형을 일부 수정한 槪念模型으로서 고찰해 보고, 그 變容 실태를 實證的 硏究를 통해 分析해 봄으로써 住居問題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歷史的 연결과 단절의 근거를 밝혀 구체적 문제해결에 한 代案을 제시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硏究範圍는 朝鮮時代부터 現代까지를 3단계로 나누어, 과거는 旣存 硏究및 답사, 古文獻을 이용하여 고찰하였고, 現代는 社會調査硏究方法을 택하였다.

硏究內容으로는 朝鮮時代및 그 이후 1945 年까지에 있어서, 社會經濟的 特性 家族特性, 여러가지 制約의 住居條件과의 관계, 그리고 行動的 性向이 住居調整 및 適應에 미친 영향을 알아 보았다. 現代는 中學生 子女를 가진 擴大期 가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豫備調査를 통해 住居缺陷 10개 次元을 만든후 下位尺度로 21個 問項을 만들었다. 本 調査時 이 測定道具의 신뢰도 계수는 α = .91 이었다.

分析方法은 尺度의 水準에 따라 빈도, 평균, X^2 - 검증, t - 검증, 二元變量分析, 一元變量分析과 그 事後檢證法 (DUNCANS), Spearman ρ와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要因分析, 回歸分析등을 적용하였다. 分析은 KAIST의 SAS program package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그 結果는 다음과 같다.

朝 鮮 時 代

社會的 身分·男女·嫡庶등의 生得的 地位는 각 가족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規範要素로서 作用하였다.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上流階層에서는 더욱 拘束力이 강했고 庶民階層에서는 그 規範的 制限한도에도 못미쳤다. 陰陽·風水思想도 社會 전반적인 분위기로서 支配的인 요소로 작용하였으나 適用정도는 地方에 따라 家族에 따라 차이가 많다.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은 上流住宅이고, 庶人이하는 坐向, 生活民俗정도 만이 적용 가능하였다.

祖上崇拜思想은 뿌리깊은 制約要素로서 家廟制 실시이후 空間으로 支持되었고 祖上崇拜, 家門中心, 長子優待, 家父長制 등 집을 영속할 근거는 더욱 强化되었다고 볼 수 있다. 內外思想은 男家中心 家門維持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탱될 수 밖에 없었던 生活메카니즘으로서 朝鮮中期를 지나면서 더욱 강화되는 면을 보인다. 大家族制 역시 上流住宅에서 擴散, 維持되었고, 住居로서 지지되었던 것이다. 庶人 이하는 大家族制영위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住居形便으로도 支待되지 못했다.

채[棟]의 구성에 특징적인 것은 內外思想에 근거한 婦女幽閉와 家父長空間의 權威性이다. 男尊女卑가 심한 고장일수록 舍廊空間의 威容이 뛰

어나고 안채는 口字型 構造를 하고 있다. 空間占有에 있어서는 男女, 身分의 分離가 제일원칙이고, 日常生活에서는 男女分離가 최우선이었다. 家系繼承은 空間占有로서 상징되며 家系繼承의 疎外者(次子이하와 그 배우자, 女息)을 위한 空間배려가 아주 빈약했다.

空間利用에 있어서 累世同居의 여러 可能性을 포용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座式 生活이다. 北方系의 온돌과 南方系의 마루가 한 집안에서 정착되는 과정에서 社會的 家族的 要求는 座式生活을 더 지지했을 것이다. 大家族과 世代를 거듭하는 家族生活週期의 수용이 男女分離의 大원칙하에 이루어진다. 해도 방의 轉用性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上流住宅에서는 規模와 裝飾, 住居地選定 등에 있어서 住居調整性이 가능했던 반면, 庶人이하는 주로 住居適應을 해야하는 면이 많았다. 기타의 住居條件(住居類型, 주변환경, 住居의 機能性)은 文化規範이 곧 家族規範이었다. 그러한 측면은 社會思想이 住居條件을 만들고 이러한 社會思想이 住居生活에 의해 더욱 지지 강화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朝鮮後期부터 1945年代까지

實學思想의 배태와 甲午更張, 開化思想, 外勢의 영향을 받으면서 1945년代에 이르는 동안, 經濟力있고 과거의 住居類型을 그대로 고수하고 사는 계층에게 있어서는 生活內容에 큰 變化가 없었다.

그러나 住居規模와 裝飾面에서 신분제한이 없어지면서, 中人階級이하 계층을 중심으로 단지 經濟力에 의해서 過去의 上流住宅에 近似하거나 모방한 規模와 裝飾, 平面構成으로 증개축 했다. 都市에서는 外勢의 영향도 추가되어 1945년까지 서서히 變化의 기운이 일고 있었다.

집을 永續할 근거가 있는 집단에서는 더 천천히, 집을 永續할 근거가 없는 집단에서는 더 빨리 規範文化의 變容을 수용하는 정도와 속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하여 적어도 1945년까지 都市와 農村, 經濟力있는 層과 그렇지 못한 階層, 開化에의 적극적 계층과 소극적 계층으로 二元化된 構造속에서, 家族規範과 住居規範의 變容에 뜻을 달리하고 있었다.

住居調整 및 適應메카니즘으로는 그대로 만족, 만족하도록 노력하는 지방의 상류주택과 그 주변 소작인들, 집을 永續할 근거가 있는 집단의 잠정적 이동, 집을 永續할 근거가 없는 집단의 영구이동, 都市住宅을 중심으로 衛生 槪念의 도입, 새로운 住居類型의 소개가 이루어 졌다. 座式生活은 연료의 변화 및 학교교육의 보편화로 立式生活이 生活속에 정착되기 전까지는 住居適應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現代 都市地域 : 中學生자녀를 가진 서울의 擴大期 家庭

1) 住居類型規範을 보면, 결혼초에는 集合住宅에 사는 것이 좋다는 경향이 우세하다. 子女가 成長하면서 부터 單獨住宅規範이 우세하며, 子女成年期에 이르러 다소 감소하다가 子女 모두 떠나고 두 부부만 사는 시기에 다시 集合住宅規範이 우세해진다. 夫婦와 결혼한 子女가 함께 사는 경우(擴大家族)는 單獨住宅規範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며 83.3%에 이른다.

2) 住居所有權規範은 子女없는 가정形成期에는 내집이 아니라도 시설환경이 나은 집을 더 좋다고 하였으나 취학전 아동기를 기점으로 내집을 가져야 한다는 規範이 단연 우세하다가 子女 모두 떠나고 두 부부만 남는 시기에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3) 主要 住居特性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국민학교 교육기의 주변환경 절대 우위와 중·고등학교 교육기의 위치 및 거리 절대우위, 成人가족

기에는 위치 및 거리의 최하위를 보였다. 經濟性은 前後의 成人家族期에는 그 중요성이 2위에 까지 오르나 비교적 전체적으로 下位에 머물렀다.

4) 寢室分離規範에 있어서 夫婦 ↔ 子女分離가 Morris팀의 基準보다 허용적이고 딸 ↔ 아들分離는 보수적이다. 同性子女끼리 침실分離나이 差는 Morris팀보다 훨씬 허용적(7.63歲, Morris팀은 4歲)이며, 子女 1人1室사용시기는 6歲정도가 더 빠르다. 11.94歲(Morris등은 18歲)라는연령은 中學校入學 연령과 일치하는 시기로서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5) 社會經濟的 特性變數에 따른 住居缺陷에 있어서 공통적인 것은, 「Ⅲ. 개방공간에의 접근성」, 「Ⅶ. 복합거주구조」의 각 級間 평균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職業地位가 높을수록, 學力이 높을수록, 所得이 많을수록 住居缺陷정도는 낮게 나타났다.

6) 家族特性變數(家族構造, 家族數)등은 家族規範的 次元에서 이미 受容된 체질적인 특성이기 때문인지 통계적으로 級間 평균차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家族特性보다 더 중요한 다른 變數들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家族特性은 住居缺陷을 심화시키는 결정적 변수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다.

7) 住居特性變數에 대해서 보면, 住居類型別로 모든 次元에서 단독주택보다 集合住宅쪽이 住居缺陷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5$ 이상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것은 「Ⅰ. 건물및 주변환경」, 「Ⅲ. 개방공간에의 접근성」, 「Ⅵ. 주거규모및 내부구조」, 「Ⅶ. 복합거주구조」, 「Ⅸ.사회심리적 안정성」이다. 이중 「Ⅲ. 개방공간에의 접근성」에 있어서는 주거유형과 주거소유권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住居所有權別로는 9개 次元 모두에 집단간 평균차가 유의했으며 셋집 및 기타인 쪽이 자가소유집단보다 住居缺陷이 많았다.

住宅價格別로는 9개 次元 모두에서 級間평균차가 $p<.05$ 수준이상에서 유의했고, 주택價格이 비쌀수록 일반적으로 住居缺陷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住居規模別로는 19坪이하와 20坪이상인 집단간에 住居缺陷의 差가 인정되었다. 특히 「Ⅲ. 개방공간에의 접근성」, 「Ⅵ. 주거규모 및 내부구조」, 「Ⅸ. 사회심리적 안정성」은 $p<.05$ 수준이상에서 통계적으로 그 차이가 인정되었다. 그외 「Ⅷ. 집의 외관」, 「Ⅰ. 건물 및 주변환경」, 「Ⅶ. 복합거주구조」에 있어서도 19坪이하와 20坪이상은 그 缺陷差에 있어서 분기점이 되는 規模이다.

房數別로는 房수가 많을 수록 住居缺陷은 일관성있게 작아졌다. 同居家口數別로도 두 가족 이상이 사는 경우 일관성있게 모든 차원에서 결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建築경과년수別로는 「Ⅴ. 주거설비」 부분에서 10년이하인 집과 11년이상인 집단간에 결함의 差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건축경과년수가 짧을수록 결함정도는 낮게 나타났다. 사는 동네別로는 기존 주거지와 1970년대 이후 활발히 개발된 지역으로 나누어 본 결과 「Ⅲ. 개방공간에의 접근성」에서 신개발지가 더 결함이 높은것으로 통계적으로 인정되었다.

8) 家族이 느꼈던 制約別 住居缺陷樣相은 ①社會環境制約을 지적한 家族 ②住宅 및 경제정책 ③ 家族內的 制約을 지적한 順으로 住居缺陷정도는 많아졌다. 앞으로 어떤것이 制約이 될것인가에 대해, 社會環境 및 정책에의 제약을 예견한 집단과 家族內的 制約을 지적한 집단의 平均差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거의 모든 次元에서 家族內的 制約을 지적한쪽이 缺陷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 住居調整 및 適應性에 있어서 住居行動의 負擔이 높은 것에서 낮은 것까지 等間尺度로 점수화하여 分析해 본 결과, 내집보다는 셋집및 기타에 사는 家族이, 단독주택보다는 집합주택에

사는 가족이, 우리 가족만 사는 경우보다 2가구 이상 사는 가족이, 방수 3개이상보다 2개이하에 사는 가족이 住居適應性보다는 調整性方向으로 더 기울어 있다. 이는 住居行動負擔정도 만으로 본 序列上에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각 주거행동 메카니즘이 갖는 특수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10) 行動的 性向, 즉 居住경력과 住居調整 및 適應性과의 상관관계는 이사횟수가 많을수록 調整性方向으로 기울었다. 또, 증개축횟수가 많을수록, 과거 및 현재집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調整性 方向으로 부터는 멀어지며, 調整性과 否의 관계에 있다.

11) 住居缺陷에 대한 關聯變數들의 설명력을 본 결과, 住居缺陷을 가장 잘 성명해 주는 단일 變數는 房數로서 房數가 많을수록 住居缺陷은 작아졌다.

12) 住居調整 및 適應性에 대한 關聯變數들의 설명력을 본 결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단일 變數는 집값으로서 집값이 적을수록 調整性이 높아졌다.

解放以後, 6.25 전쟁과 産業化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동과 정치체제는 現代에 이르러 家族內的 힘은 職業, 所得, 學力등의 社會經濟的 變數에 의해 一次的으로 결정되며 이들 變數에 따라 住居特性의 水準이 달라진다.

그러나 個別家族은 住宅정책, 경제정책, 社會環境의 制約을 초월할 수 없다. 물론 餘力이 있는 계층일수록 住宅政策, 經濟政策의 拘束力을 덜 느끼는 경향도 있으나 社會環境變化에는 오히려 더 민감하다. 餘力이 없는 계층은 家族內的 한계성을 더 많이 느끼고, 住宅政策 및 經濟政策의 拘束力을 더 많이 느낀다.

本 硏究에서는 基本 前提로서 家族單位에 초점을 맞추어, 家族生活週期에 따라 住居要求가 一貫性있게 달라지는 것에 주목하여 家族週期別로 家族規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社會經濟的 地位別로 文化規範 자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社會經濟的 地位變數에 의해 一次的으로 성취되는 住居成就度가 낮으면, 「文化規範－住居條件 ＋家族規範＝規範的 住居缺陷」이라는 槪念的 等式에 있어서, 家族規範에 의해 다소 완화된다고는 해도, 結果的으로는 住居缺陷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였다. 實證的 資料로서 이러한 사실은 증명되었다.

그렇다면, 傳統과 現在의 住居文化에 배경을 둔, 사회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住居規範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이며, 住居規範에 부응하는 쪽으로 政策을 이끌고 나가야 함은 家族의 長期的 住居福祉를 위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歷史的 背景과 實證的 資料를 고려하여 몇가지 提言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1) 住宅이 家族의 社會的 地位를 상징하는 뿌리깊은 文化的 背景을 고려할 때 現代的 의미의 投資性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規模의 大型化 추구, 내집 소유의식은 쉽게 완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餘力의 계층은 市場機能에 어느정도 맡기고, 公共部門 住宅건설 및 주택금융은 缺陷水準에 차이가 인정되는 19~21 坪이하를 중심으로 즉, 住居水準成就에 餘力이 부족한 계층을 대상으로 주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대주택은 자녀없는 前後의 成人家族期를 대상으로 설계되고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주기단계 진전에 따라 같은 단지 안에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임대주택은 類型과 坪數를 달리한 분양주택과 균형을 이루어 공급하는 것이 주거생활안정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2) 身分에 따른 家坐제한, 陰陽風水에 근거한 住居地 選定, 坐向에 대한 믿음, 오랜 農耕文化의 소산인 땅에 대한 애착이 단독주택소유집념으로 투사되므로, 住居規範的으로 單獨住宅規範은 쉽게 완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住宅政策을 多元化하고, 근린환경개념을 도입하여, 편익성을 도모하면서 한 團地안에 다양한 住居類型과

規模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集合住宅일지라도 가능한한 단독주택의 특징적인 면을 많이 적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그 例로, 베란다 비율을 높인다든가 中間層및 옥상에 開放空間을 효율화 하는 방법, 개성적 외형을 도입하는것들이 高層아트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接地 및 準接地型의 低層高密위주의 집합주택건설도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內部시설, 간살이, 장식등에 취사선택 비율을 높혀, 대량공급으로 인한 저렴화를 꾀하면서 家族生活樣式과 個性의 多樣性에 適應하는 空間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空間과 生活空間의 相互影響性을 重視할 것이며, 똑같은 집, 똑같은 生活樣式이 초래하는 家族病理的 社會病理的 現象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3) 寢室分離에 있어서 부부↔子女 취침분리기준과 男女分離는 傳統性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고, 1인1실 사용규범은 社會環境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부분이다. 同性子女分離 나이差는 人間發達의 학문적 성취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정립이 안된 상태이다. 그러나 文化規範的으로 허용된다면 病理的 問題를 일으킬 가능성은 적다. 本 硏究의 결과는 旣存의 基準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子女數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비추어, 規模別 房數결정 및 앞으로의 住居計劃 및 評價에 적용되어야 하리라 사료된다.

4) 한 사회의 安定性은 住居의 安定性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리고 한 地域社會에의 애착은 그 역사회의 참여율과 관계가 깊다. 애착이 깊을 때, 쉽게 이사를 결정하기 보다는 가능한한 適應, 즉 개축을 하며 그대로 살고자 한다. 지역사회참여는 空間으로서 支持되지 못할 때는 영속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재개발 및 주거단지계획시는 집합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도 團地的 성격을 띠어야 할 것이며 地域社會의 社會的 유대를 고려하여, 住民을 위한 행정적 편익시설을 중심으로 도서관, 광장등의 空間과 지역행사계획이 이루어지는등의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社會氣風의 安定性, 그리고 地域住民의 住居生活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投資이다.

5) 住居團地內의 同質性과 異質性이 住居類型과 規模, 配置面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획일적인 것보다는 유치원을 중심으로는 同質性이, 國民學校를 중심으로는 異質性이 擴大되는 양상을 보여야 多樣한 生活樣式과 경험을 통한 健全한 사회화가 가능하다. 傳統的으로 影響力있는 上流住宅을 中心으로 마을이 이루어 졌듯이, 1개 주거단지에 上, 中, 下계층이 고루 있어야 上層은 地域社會 發展에 더 많이 기여하고 下層은 그 여과효과를 볼 수 있다. 이는 社會福祉的 측면에서 國家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地域社會의 次元에서 해결할 수 있는 힘으로서 작용할 것이며, 地域社會間의 균형있는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청소년의 직업발달에 관한 생태학적인 시도

- 미 남부 농촌지역의 저소득층 청소년의 직업발달 분석 -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윤 종 희

연구의 목적

본 논문의 주목적은 청소년의 직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들을 -즉 가족환경요인, 아동의 성격요인, 주요타자의 영향, 아동의 성취동기(예. 교육적, 직업적 성취욕 및 기대감)와 교육수준- 분석하는데 있다. 부차적인 목적으로는 분석된 청소년의 직업발달과정을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개념화시켜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발표는 두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연구의 주목적에 의해 행해진 분석결과의 보고이고, 둘째는 부차적인 목적에 의한, 즉 연구결과를 생태학적인 이론의 기본가정에 연결시켜보는 시도이다. 결론으로 청소년의 직업발달을 분석해보려는 연구자들에게 미래의 연구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논문의 통계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일단의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행해진 "Dynamics of Life plans Attainment of Rural Low-Income Youth : A Longitudinal analysis"(이하 "원연구"라 칭함) 이라는 10여년간에 걸쳐 장기추적조사에 의해 수집된 것으로써, 본 논문은 상기자료의 이차적인 분석이다.

"원연구"의 모집단은 미 남부여섯주(켄터기, 미시시피, 남·북부 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의 청소년을 상대로 표집되었으며, 분석단위는 544명이다. "원연구"는 조사대상집단이 국교 5학년 (6학년)에 시작되어 고교졸업 4년후이상 계속 추적되고 있다(현재 진행중). 그러므로 자료의 표집은 조사대상집단이 국교 5년(6년)인 1969년, 고교 2년(3년)인 1975년, 그리고 고교졸업 4년후인 1979년, 3차에 걸쳐 시행되었다. 본논문은 1차, 2차, 3차에 걸쳐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 료 처 리

이용된 경로분석모형(Path Analysis model)은 지위획득모형(Status-Attainment) 연구자들의 것에 기초하였다. 상기한 제반요인들의 영향력은 성별과 인종을 통제한후에 분석되었다(도표 1 참조).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과 가설의 설정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고 결과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결과의 분석

먼저 결론적으로, 미 남부 농촌지역, 저소득층 청소년의 직업발달은 이 연구가 제안했던 생태학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요약될 수 있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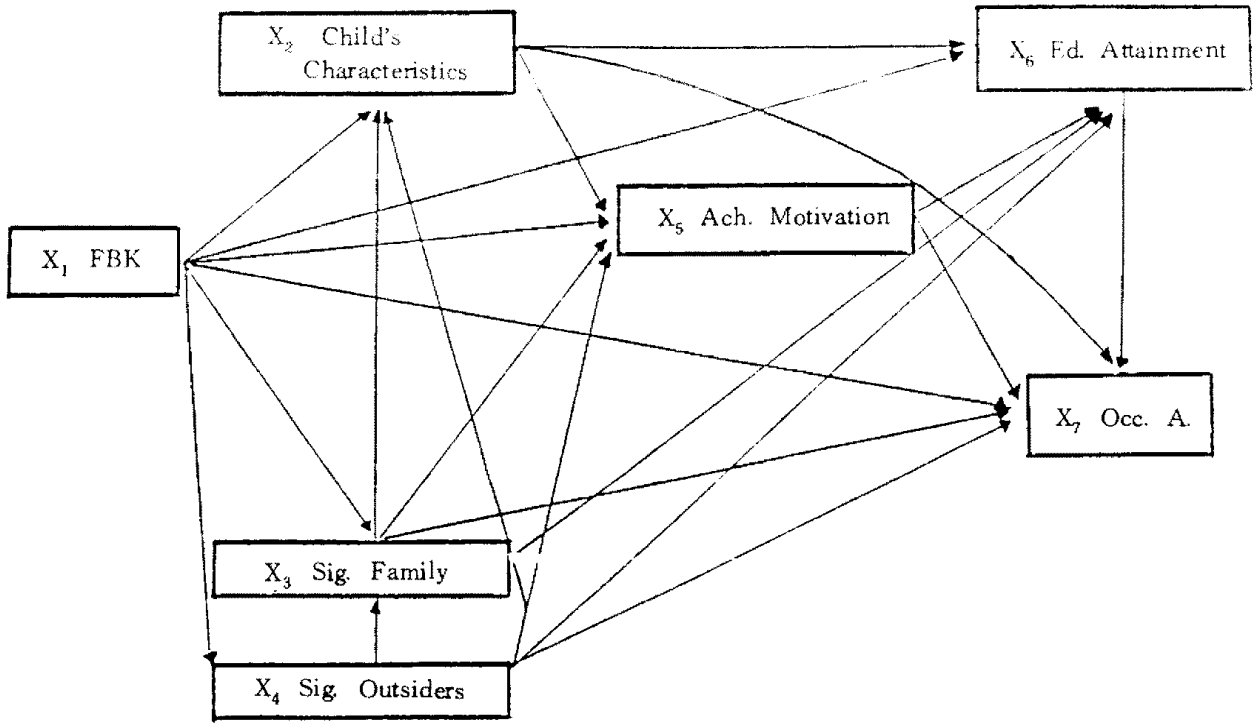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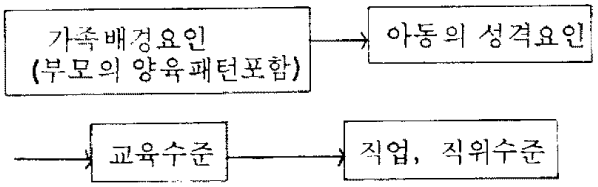


Fig. 1. Path Diagram of conceptual model.
(with likely directions of association indicated)*

* Note that statistical assumptions of path modeling allow only for unidirectional relationships.

표 2). 지위획득모형 (Status-Attainment model)
주창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인과사슬로 표현될 수 있다.



경로분석모델상에서 청소년의 직업발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성취동기와 교육수준, 두요인 뿐이었으며, 가장 설명력이 높은 요인은 성취동기요인이었다. 그외의 요인은 이 두 요인을 거쳐 영향력을 반영하는 간접적인 요인들이었으나 그들의 중요성이 지적된 이유는 그 영향력의 정도가 직접적인 영향력의 그것과 비교될 만하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의 직업성취를 예측하는데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분석된 성취동기요인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요인은 가족이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력이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수준보다 청소년의 성격이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의 정도가 더 컸음이 발견되었다.

생태학적 개념화의 시도

본 연구의 결과에 입각하여 생태학적인 이론의 틀에 청소년의 직업발달과정을 재조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직업발달은 (미 남부농촌 저소득층) 생태학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즉 인간개체 system(청소년의 지능, 학문적, 성취적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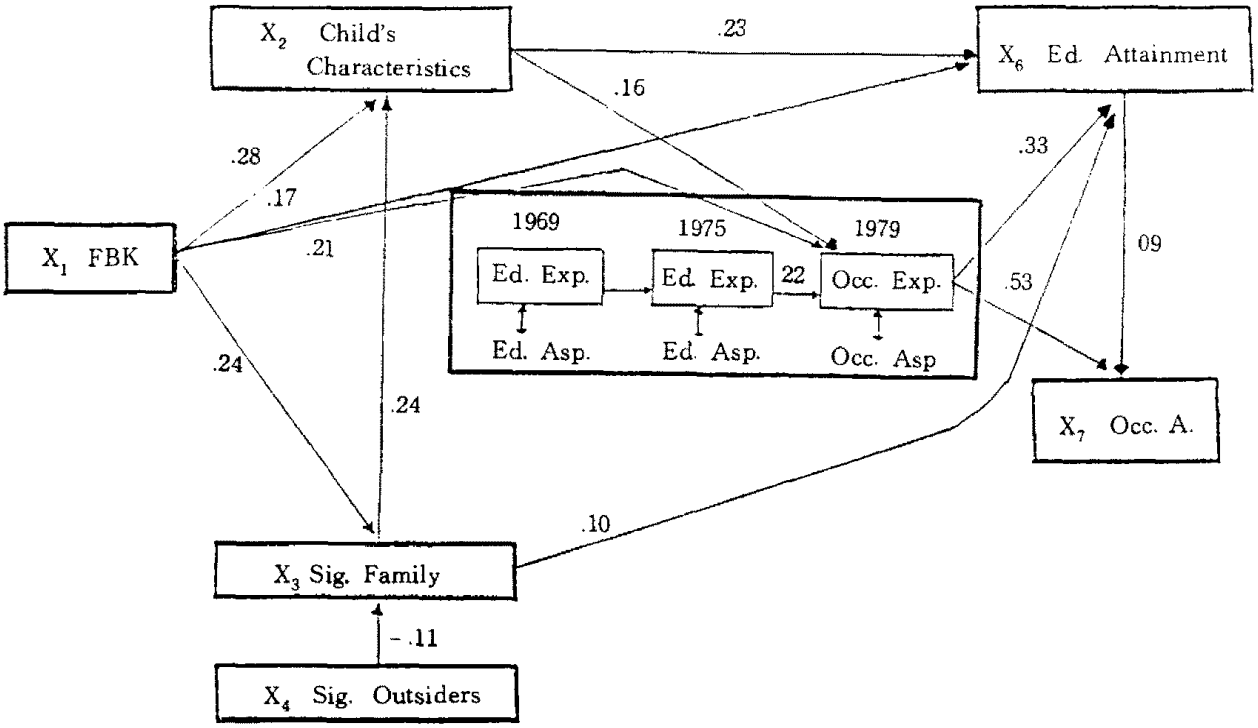


Fig. 2. The path model of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All path coefficients are significant at $\alpha < .05$ level)

자아관), 가족 system (가정의 사회경제적 요인등과 같은 가족구조적요인, 양육패턴, 가치관등과 같은 가족과정적요인), 그리고 교육 system 모두의 영향을 받는다.

2) 인간개체 system의 영향력이 중요함이 입증되었는데, 이 연구는 인간이 능동적인 행위자인 동시에 수동적인 반응체의 입장, 모두를 입증하였다.

3) 가족 system의 영향력이 입증됨으로써 청소년의 직업발달이 가족의 기능의 하나임이 발견되었다. 이 과정에서는 가족의 구조적요인과 과정적요인 모두가 영향력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4) 직업발달은 인간발달의 한 과정으로써, 그 과정을 연구함에 있어 시간적, 공간적 차원의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성 모두가 검토되어야 한다. 공간적 차원에서 본 system 변인들과, 시간적차원에서 본 장기·추적조사 모두가 각 생태학적요인들의 직접적, 간접적 영향력을 분리, 규명하는데 주요한 몫을 담당하였다.

Table 1. Decomposition of effects of significant predictors of occupational attainment for southern, low-income rural youth

Dependent Variables	Path Coefficients (Direct)	Indirect Effect	Total
Ed. Attainment	.09		.09
Achievement Motivation ('79 Occ. Exp.)	.53	.03 (through Ed. Attainment)	.56
Significant Other's Influence			
Parents		.009 (through Ed. Attainment)	.04
		(through Child Characteristics)	
Outsiders	- - -	- - -	- - -
Child Characersitics		.02 (through Ed. Attainment)	.11
		.09 (through Ach. Motivation)	
Family Background	- - -	.02 (through Ed. Attainment)	.18
		.12 (through Ach. Motivation)	
		.01 (through Sig. Other's Inf.)	
		.03 (through Child Characteristics)	

1 Race and sex were controlled for all path equations.

특 강 공 고

안녕하십니까?

금번 본 학회에서는 일본 お茶の水女子大學 교수로 계시는 湯澤雍彦(유자와 야스히꼬) 선생님을 초빙하여 "日本의 老人福祉 및 家族問題"에 대한 주제로 아래와 같이 특강을 갖고자 합니다.

귀 학과의 교수님 및 대학원생(석·박사 과정)들께 공고하여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아 래-

주 제 : 日本의 老人福祉 및 家族問題
일 시 : 1988. 5. 30(월), 15 : 00~16 : 30
장 소 : 한양대학교 학생회관 콘서트홀
주 최 : 한국가정관리학회
후 원 :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 湯澤雍彦(유자와 야스히꼬) 교수 경력

현 직 : お茶の水女子大學 교수
전 공 : 家族社會學, 家族法律學
저 서 : "家族問題", "새로운 家族學"외 다수
편 저 : "老人扶養의 硏究", "世界의 離婚"외 다수